

상황의미론에 기초한 영어 내포 시제 연구: 태도문을 중심으로

조영순*†
여수대학교

Cho, Youngsoon. 2000. A Situation Semantic Account of English Embedded Tense. *Language and Information* 4.2, 27-40.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 way of analyzing English embedded tense in terms of temporal perspective time. To this end, the notion of temporal perspective time and Cooper and Ginzburg's (1996) attitude account are employed. Temporal perspective time is used to define the tense and to capture the anaphoric property of embedded tense: the embedded temporal perspective time draws the embedding event time by anaphora. The ambiguity in the sequence of tense construction is described in terms of the attitude tense constraint reflecting the anaphoric property and two definitions of the past tense. The double access property in the present-under-past construction is described in terms of the constraint, the notion of eventuality, and the situation theoretic existential quantifier. (Yosu National University)

1. 머리말

시제 연속과 관련된 여러 현상 중 과거시제의 연속 현상, 즉 내포절 과거시제가 주절 과거시제의 사건시를 선행하거나, 이와 중복되는 해석을 갖는 현상에 관한 연구는 그 형식을 달리하면서 여러 연구의 주제가 되어 왔다. 그 이유는 주절과 종속절이 같은 시제를 가진 시간 표현들 사이의 관계가 더 유연하고 일반적이기 때문일 수도 있다 (Smith, 1981). 그러나 내포 시제에서 발견되는 전반적인 현상, 즉, 내포 시제가 주절 시제 형태에 의존하여 해석될 수도 있고 발화시와 관련되어 해석될 수도 있는 현상이 많은 예외를 가지고 있다는 것도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1)의 과거 시제 연속 구문은 예측대로 중의적 해석이 가능하지만, (미래시제를 인정한다면) (2)의 내포 시제는 중의적 해석을 가질 수 없고 주절의 사건시와 관련하여 이를 후행하는 하나의 해석만을 갖게 된다. 또 다른 이유는 주절이 현재시제인 경우, 내포된 시제의 기준시가 주절의 사건시라 하더라도 이는 결국 발화시이기 때문에 내포되지 않은 시제와 별반 다른 특징을 보일 까닭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1) John believed that Bill was here.

(2) John will think Mary will win. (Dowty, 1982)

한편, 모든 형태의 과거시제 연속 구문이 일정한 중의성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 Heny (1982)는 (3)의 세 문장에 쓰인 내포절의 과거시제가 각각 주절 시제의 사건시를 후행하거나 이와 중복되거나 이를 선행하는 해석만을 가질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주절과 내포

* 이 논문은 1998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논평과 제안을 해 준 논평자에게 감사드린다.

† 550-749 전남 여주시 둔덕동 산 96-1번지 여수대학교 영어영문학과, E-mail: ysncho@yosu.ac.kr

절 사이의 시간 관계의 일관성은 명제에 대한 태도(propositional attitude)의 속성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주장 한다.¹

- (3) a. Sam married a woman who left him for another.
 b. Sam married a woman who was an actress.
 c. Sam married a woman in 1950 who was an actress when I met her in 1940.

태도 구문에서는 또 다른 내포 시제 현상을 찾아 볼 수 있다. 소위 과거시제 밑의 현재시제(present-under-past) (Abusch, 1991) 구문인 (4)는 Mary가 임신한 사건이 주절 사건시 뿐 아니라 (4)의 발화시에도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중접근(double access) (Ogihara, 1996)을 허용하는 구문이다.²

- (4) Fred told me that Mary is pregnant. (Kamp and Reyle, 1993)

여기에서는 상황의미론의 틀 안에 태도 구문의 이러한 시제 속성을 수용하는 방법을 보이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사건시와 발화시를 이용하던 상황의미론의 시제 설명에 관점시라는 개념을 도입하며 태도의 내용이 주절의 사건시를 관점시로 하여 표현된다는 점을 보이겠다. 2절에서는 현재 시제와 과거시제의 의미를 관점시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상황의미론적 방법으로 표시한다. 3절에서는 태도문의 의미를 상황의미론의 의미 기술 방법으로 표시한다. 4절에서는 주절의 사건시와 내포절의 관점시를 대응어 관계로 연결, 태도문의 과거시제 연속현상과 과거 밑의 현재의 시간관계를 기술한다.

2. 시제 사용과 관점시

시제 설명에 사건시와 발화시 뿐 아니라 관점시를 이용하는 방법들은 그 명칭이나 방법상 다소 차이는 있었지만 여러 시제 연구에서 이용되어 왔다. 그 첫 시도로 보여지는 것은 Reichenbach가 완료나 다른 복합 시제를 다루면서 이용한 참조시(reference point) 개념이다. 참조시는 단순 시제의 경우 사건시이며, 완료나 몇몇 복합 시제의 경우 관점시이며, 담화에서는 부각되고 있는 맥락상의 시간이라는 여러 특징을 지닌다 (조영순, 1997). 현재완료를 발화시와 중복되는 “참조시에서 보는” (Reichenbach, 1947, 289쪽) 것이라는 Reichenbach의 설명과, 화자들은 완료에 대해서는 참조시가 있다는 직관을 가지지만 단순 시제에는 참조시가 있다는 직관을 갖지 못한다는 Hwang and Schbert (1994)의 지적은 시제 설명에 있어서 관점시의 필요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Reichenbach 이후의 시제 연구들은 어떤 형식으로든 그의 영향을 받고 있다.³ 이 중 Kamp and Reyle (1993)은 Reichenbach의 참조시의 특성을 담화 지칭시(reference point)와 관점시(temporal perspective point) 개념으로 나누고 이 중 관점시를 이용, 시제를 정의하고 있다. 이들은 예를 들어 현재, 과거, 미래 등의 단순 시제를 발화시인 관점시와 각각 중복, 선행, 후행하는 사건시와의 관계로 파악하고 would로 표현되는 과거 미래는 발화시 이전의 관점시가 사건시를 선행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Kamp와 Reyle은 각 시제 표현의 관점시를 고정함으로써 다음과 같은 시제 사용을 설명할 수 없다. (5)의 예문들은 현재시제가 사용되고 있지만 각각 과거의 사건이나 미래의 사건을 표현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시제 사용의 공통된 특징은 관점시가

1. 그는 또한 보문소(complementizer)도 역할을 하리라고 보고 있다.
 2. (4)에서의 내포 시제가 이중 접근 시제임은 이 시제의 속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Kamp and Reyle (1993)에서처럼 (4)에서의 현재시제는 내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화시와 관련되어 해석되어야 하는 지칭적(indexical) 속성을 지닌다는 점이 대용표현(anaphora)의 속성을 지니는 과거 시제 연속 구문의 내포 시제와 다르다고 보는 것은 이들 시제의 속성을 제대로 포착한 것으로 보기 힘들다.
 3. 그들은 그의 설명을 확장하거나 (Johnson, 1981; Doron, 1990), 수정, 활용하거나 (Hornstein, 1977; Smith, 1978; Smith, 1981; Comrie, 1981; Kamp and Reyle, 1993; Blackburn and de Rijk, 1994) 또는 반박하고 이용하지 않는 (Hwang and Schbert, 1994) 등의 양상을 보인다.

발화시이고, 사건시가 관점시와 중복 되는 것이라기 보다는 자유로운 관점시와 이에 중복되는 사건시와의 관계일 것이다. (5a)의 경우 관점시는 발화시 이전이고 (5b)의 경우 발화시 이후라면 (5)의 현재시제 사용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⁴

- (5) a. Napoleon (now) *leads* his army to the Alps.
b. John *leaves* town tomorrow.

과거시제에 있어서도 같은 설명을 할 수 있다: 과거시제 사용은 자유로운 관점시와 관점시를 선행하는 사건시 사이의 관계로 가장 잘 특징지을 수 있다. (6)은 내포절에 있는 과거시제의 관점시가 발화시 이후가 되는 것으로 가정해야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 (6) a. My wife will be sorry that she *missed* seeing you this evening. (Quirk *et al.*, (1985, 188쪽))
b. John will report that Mary *was* in Rome. (Ejerhed, 1980)⁵

Kamp and Reyle (1993)의 관점시 이용이 제한적이었다는 결점에도 불구하고 주목할 만한 것은 이들이 과거시제 사용의 또 다른 특징을 과거시제에 대한 이원적 정의로 잘 포착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들은 관점시가 발화시 이전이고 사건시가 이 관점시와 중복되는 과거시제의 또 다른 특성을 인정한다. 그것은 (7)에서 보듯이 과거시제가 now와 공기(co-occur)하는 소위 자유 간접화법(Free Indirect Speech)의 경우를 설명할 수 있게 해준다.

- (7) a. Mary had been unhappy in her new environment for more than a year. But *now* she *felt* at home. (Kamp and Reyle, 1993, 595쪽)
b. Tomorrow *was* Monday, Monday, the beginning of another school week. (Doron (1990)에서 인용한 D. H. Lawrence의 *Woman in Love*: 185)

여기에서는 지금까지의 논의대로 현재시제는 관점시와 사건시의 중복 관계로, 과거시제는 사건시가 관점시를 선행하거나, 또는 발화시를 선행하는 관점시와 중복되는 두 가지 관계로 정의하겠다. 이러한 시제 특성은 상황의미론을 이용하면 (8)과 같이 표시될 수 있다. 단 여기서 C는 발화환경(circumstances)을, t'는 관점시를, t는 사건시를, t_d는 발화시를 나타낸다.

- (8) a. C[[present]]t, where t' < t
b. C[[past]]t, where (t' < t_d ∧ t' < t) ∨ (t < t')

물론 대부분의 시제 사용에서 그 관점시는 발화시와 같다. 그러나 특수한 시제 용법, 예를 들어 (5a)와 같은 역사적 현재나, 현재미래로 불리우는 (5b)와 같은 시제 용법에서는 관점시가 발화시 이전이나 그 이후로 이동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따라서 위의 여러 시제 사용은 (8)에 나타난 시제 속성에 각각 몇몇 특성을 부가하는 것으로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역사적 현재라는 현재 시제의 용법은 (8a)의 현재시제 정의에 관점시가 발화시 이전이라는 또 다른 조건을 가지는 것으로, 현재미래는 관점시가 발화시 이후라는 또 다른 조건을 가지는 것으로 기술할 수 있을 것이다. (7)의 자유 간

4. 물론 한 논평자가 지적한대로 (5)의 예문들은 현재시제의 특별용법이며 현재시제의 관점시는 발화시와 관련되어 해석되어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시제의 관점시가 발화시 이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조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5. 이 경우 과거시제의 관점시가 발화시인 해석도 가능하다.

접화법이라는 과거시제의 용법은 과거시제에 대한 (8b)의 첫 번째 정의로 특성화해 볼 수 있다.⁶ 다음 절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에 기초, 과거시제에 내포된 태도절의 시제 해석을 시도하겠다. 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관점시 일반값 제약을 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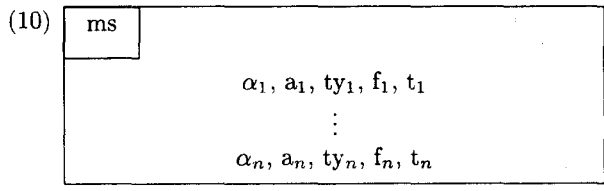
- (9) 관점시 일반값 제약(Default Value of Temporal Perspective Time) 시제 표현의 관점시는 달리 명시하지 않으면 발화시와 중복된다.

3. 태도문의 시제

3.1 상황의미론의 의미 기술

태도는 상황의미론 초기 (Barwise and Perry, 1983)에 개체와 사건유형 (event type) 사이의 관계로 간주되어 왔다. 이런 맥락의 태도 연구는 물리적인 상황과 구별되는 인식상의 상황을 도입하고 태도를 개체와 유형과 논항할당 사이의 관계로 파악한 Cooper and Ginzburg (1996)에 이르러 더욱 더 정비되었다.⁷

마음 속의 인식 상황인 마음의 상태(mental states)는 특수한 부류의 상황으로서 다음과 같은 명제가 참이 되는 상황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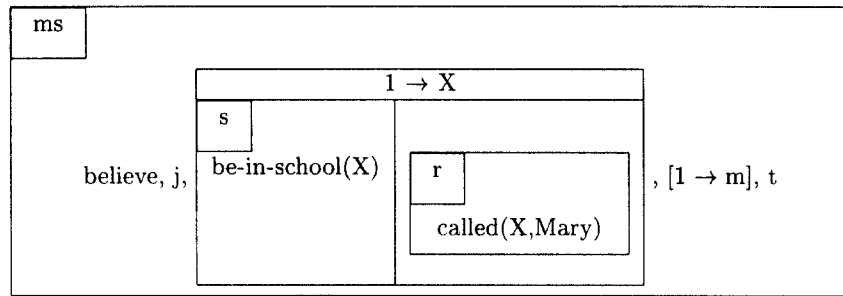


(10)의 α_i 는 believe, know, glad의 내적인 태도 관계(internal attitude relation)인 believe#, know#, glad#이고⁸ a_i 는 태도 주체(agent)이며, ty_i 는 믿음의 내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유형(type)이고, f_i 는 믿음의 외적인 내용을 보여주는 (부분) 할당함수(partial assignment)이며, t_i 는 시간이다.

예를 들어 John이 Mary가 학교에 있다고 믿는다면 그 믿음은 (11)과 같이 표시된다. 이 때 믿음의 내용은 유형과 할당함수로 나타난다. 유형은 할당함수에 대한 서술화(predication)과정을 겪음으로써 (12)와 같이 명제를 이룰 수 있다.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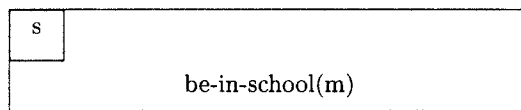
6. 물론 이러한 설명은 관점시와 발화시 사이의 관계 뿐 아니라 또 다른 담화 양상, 즉 관점시를 옮기는 경우 야기되는 효과 등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7. 이들은 의미합성을 고려하여 태도를 개체와 명제간의 관계로 보는 견해와 개체와 속성간의 관계로 보는 견해를 제약으로 연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으나 의미합성을 고려하지 않는 본 논문에서는 전자의 견해를 고려하지 않겠다.
 8. 이 논문에서는 believe 관계와 이 관계에 대한 개념을 나타내는 believe#의 관계를 구별하지 않고 이용하겠다.
 9. 유형과 논항할당의 결합은 명제와 동치관계를 이루지만 같은 것으로 볼 수 없다. 왜냐면 유형과 논항할당은 명제보다 섬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태도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11)에서와 같이 유형과 논항할당으로 나누어 표시하는 것도 예를 들어 John은 Mary가 학교에 있다고 믿지만 실제 세상에서 Ann을 Mary로 잘못 믿고 있을 경우 John의 마음의 상태를 섬세하게 표시하기 위함이다.

(11) DO=



이 때 j는 John을, m은 Mary를 지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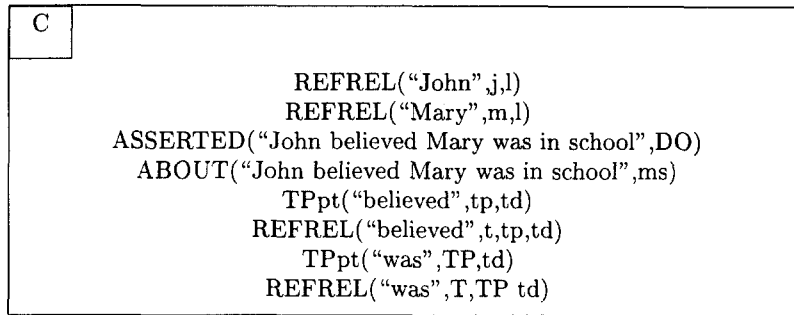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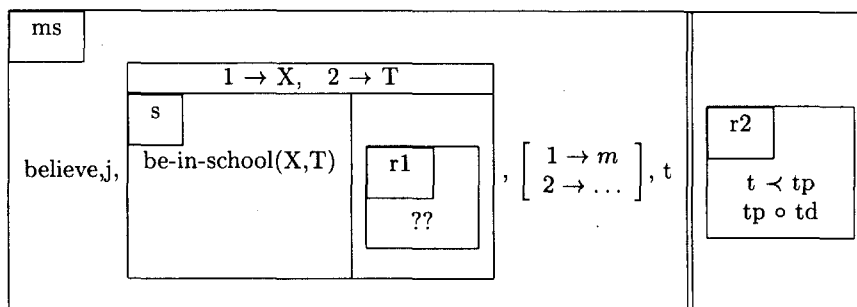
태도를 표현하고 있는 태도문 (13)은 한 문장의 의미를 그 문장이 발화된 발화환경(circumstances, C)과 그 문장이 기술하는 명제내용인 기술대상 (described object, DO) 사이의 관계로 파악 (Gawron and Peters, 1990) 하는 상황의미론의 기술에 따르면 (14)와 같이 기술될 수 있다.

(13) John believed Mary was in school.

(14) C || John believed Mary was in school || DO iff



and DO =



문장 (13)의 의미(meaning)는 C와 DO 사이의 추상적인 관계이고 특정 환경에서 (13)의 발화는 화자에 의해 선택된 상황 ms가 believe 관계로 이루어진 정보소를 지원하는 명제라는 해석(interpretation)을 갖는다.

(14)에 의하면 문장 (13)의 적절한 발화환경은 여러 정보소를 지원해야 한다. 관계 REFREL로 이루어진 정보소들은 화자의 발화와 그 발화로써 화자가 지시하고자 하는 개체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화자는 "John"이라는 표현으로 개체 j를 지시한다. 관계 ASSERTED는 발화와 그 발화의 기술대상과의 관계이다. 위의 경우 기술대상은 John의 마음의 상태 ms가 유형과 할당함수로 표시된 명제를 믿는 것을 지원한다는 명제가 된다. ABOUT관계는 특정 발화를 세상 안의 특정 개체, 즉, 상황이나 개체와 연결시킨다.¹⁰ 위의 경우 발화 "John believed Mary was in school"은 마음의 상태 ms에 관한 것이다.

위 문장의 시제 정보는 과거 표현과 시간 t 사이의 REFREL 관계로 표시된다. 관계 TPpt는 화자가 시간 표현을 발화하면서 특정 시간을 기준으로 삼을 때 그 발화와 그 시간 사이의 관계이다. believe가 지시하는 시간 t에 대한 정보는 기술대상인 명제의 제약(restriction)¹¹으로 표시된다. 시간 t가 관점시를 선행하며 관점시는 발화시와 중복된다는 것은 과거시제에 대한 위에서의 조건과 관점시 일반 값 제약에 따른 것이다.

내포시제의 시간 정보는 내포된 명제 상자 안의 제약으로 표시될 것이다. 다음 절에서는 내포질의 관점시에 대한 제약으로 내포시제의 시간 정보를 기술하게 된다.

10. 예를 들어 위 문장은 다른 발화환경에서는 마음의 상태 ms에 대한 기술이 아니라 개체 j에 대한 기술일 수도 있다.

11. 위 명제의 진위는 이러한 제약이 지켜질 때, 즉, 자원상황 r2가 이와 같은 정보소들을 지원할 때만 논할 수 있다.

3.2 과거시제 연속

과거시제 연속 구문의 내포절 시제가 주절 사건시와 관련되어 해석되는 현상은 명제에 대한 태도구문에서, 그리고 간접화법이라 불리는 인용문에서 전형적으로 발견된다.¹² 이들 구문의 시제 현상에 대한 통사, 의미상의 포괄적 연구로 Ogihara (1995; 1996)가 있다. 그는 내포절 시제가 주절 시제에 의해 국부적으로 성분통어되는 경우에 생략될 수 있다는 통사적 규칙을 가정하여 과거시제 연속구문이 (15)와 같은 두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태도를 개체와 속성 사이의 관계로 가정하면 (15)는 (16)과 같이 번역되고 (16)에 대한 해석은 (17), 즉, say의 어휘 의미를 이용하여 이루어진다.

(15) a. John PAST say that Mary O be sick

b. John PAST say that Mary PAST be sick.

(16) a. $\exists t_1 [t_1 < s^* \wedge t_1 \subseteq t_{R1} \wedge \text{say}'(t_1, j, [\text{be-sick}'(m)])]$

b. $\exists t_1 [t_1 < s^* \wedge t_1 \subseteq t_{R1} \wedge \text{say}'(t_1, j, \lambda t_2 [\exists t_3 [t_3 < t_2 \wedge t_3 \subseteq t_{R3} \wedge \text{be-sick}'(t_3, m)])]$.

(17) For any world w , time t , "property of times" p (=a set of world-time pairs), and individual e , $\|\text{say}'\|(p)(e)(t)=\text{true}$, iff in w at t , e talks as if e self-ascribes the property of being located at a time at which p is true.

(17)에 따라 (16a)는 "John이 Mary가 아픈 시간과 세계에 위치하고 있는 속성을 가지는 것처럼 말한 과거 시간 t 가 있다"를 의미하게 되고 (16b)는 "Mary가 아픈 시간 t' $t' < t$ 에 위치하고 있는 속성을 가지는 것처럼 John이 말한 과거 시간 t 가 있다"를 의미하게 된다. 따라서 (16a)는 주절, 내포절의 시간이 동시인 해석을, (16b)는 내포절의 시간이 주절의 시간을 앞서는 해석을 갖게 된다.

Ogihara의 설명은 과거연속 구문에 대한 지금까지의 전통적인 비형식적인 설명 방법을 형식화하였다는 장점이 있다. 전통적으로 내포절 과거시제는 주절의 사건시를 대용어처럼 취해 이를 기준으로 한 시간 해석을 갖게 되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다. 이 때 기준시를 선행하는 과거시제 본연의 속성을 갖기도 하고 과거시제 형태소가 생략되어 기준시와 중복되는 현재시제의 속성을 갖기도 한다. 그러나 이를 형식화하는 과정에서 내포절 과거시제 형태소가 일정한 구조 속에서 삭제될 수 있다는 수의적 규칙의 설정은 직관적인 면에서 설득력이 약하다.

전통적인 설명이 기초했던 지시 중심의 변화는(shift in deictic center) 직접화법의 화자에게 맞추어져 있던 지시의 기준이 간접화법과 같은 인용문에서는 발화를 보고하는 화자에게 옮겨가는 것으로서 직·간접화법 사이의 대명사, 시간부사 등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이용되어 왔었다. John이 어제 "I shall leave tomorrow"라고 얘기한 것을 내가 오늘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면 "John said that he would leave today"로 말하게 된다. "이런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I와 he, tomorrow와 today사이의 기계적인 변화가 아니라 지시 중심의 변화이다" (Comrie, 1985, 108쪽).

시제와 관련해서도 같은 설명을 적용할 수 있다. Higginbotham이 다음과 같은 원리로 일반화하고자 했던 것도 내포절 시제 해석에서의 지시 중심의 변화이다.

(18) An immediately embedded past tense may draw the reference of its second temporal coordinate by anaphora, referring back to the first temporal coordinate of the superordinate tense. (Higginbotham, 1997, 3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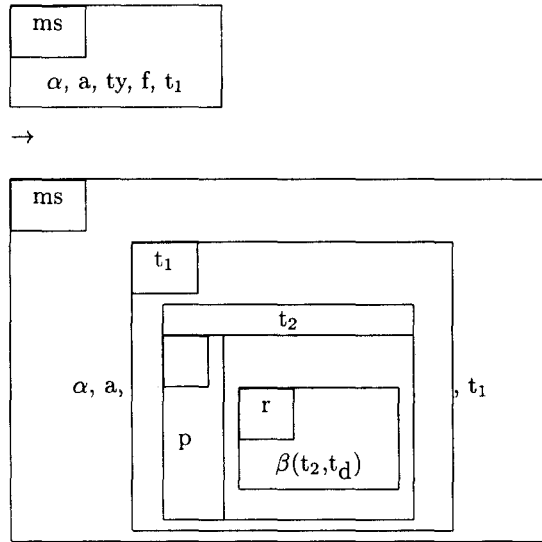
시제 의미를 사건시와 주로 발화시로 표현되는 기준시 사이의 관계로 표시하는 일반적인 설명에 따르면 (18)에서 말하는 첫 번째 좌표는 각 시제 표현의 사건시이며 두 번째

12. 여기에서는 단순히 인용문의 의미 관계가 태도문과 같은 것으로 간주하겠다.

좌표는 기준시이다. 따라서 (18)는 주절 시제의 사건시를 기준시로 하여 내포 시제의 해석을 시도하는 방법이다.

인용문, 태도문 등에 지시 중심의 변화라는 설명이 일관되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들 구문에 나타나는 시제가 과거시제일 경우 뿐 아니라 다른 시제 형태의 해석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는 대명사나 시간 부사에 관한 설명은 생략하고 시제와 관련된 지시 중심의 변화만을 형식화 하여 시제 설명에 이용하겠다. 이와 같은 내용은 상황미론의 틀 안에 다음과 같은 제약으로 형식화할 수 있다.

(19) Attitude tens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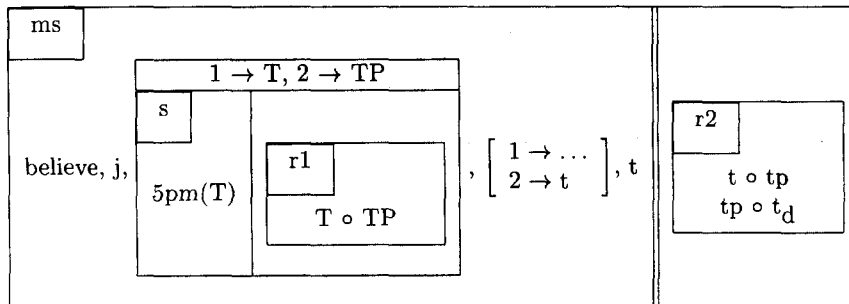


단 p는 명제, r은 자원상황, β는 시간관계, t_d는 발화시, t_i는 시간들

어떤 마음의 상태 ms가 태도 주체 a가 가진 태도 내용을 시간 t₁에 지원한다면 그 t₁이 태도 내부 내용의 관점시 t₂가 된다. 이와 같은 제약을 이용하여 다음 태도문의 시간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¹³ 이때 t는 주절의 사건시를, tp는 주절의 관점시를, T는 내포절의 사건시를, TP는 내포절의 관점시를 나타낸다.

(20) John believes it is 5 pm.

(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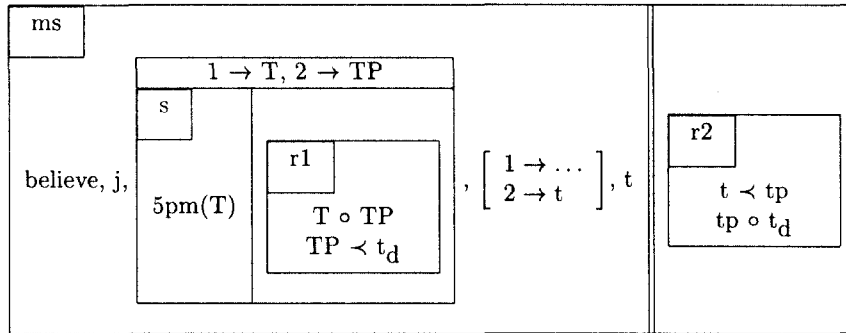
13. 발화환경 C가 지원하는 정보소는 편의상 표기하지 않는다.

- (22) a. (21)의 매개물을 정박해주는 함수 f 가 있고
- b. $f(TP) = f(t)$
- c. $r_1 \models \langle \circ, f(T), f(TP) \rangle$
 $r_2 \models \langle \circ, f(t), f(tp) \rangle, r_2 \models \langle \circ, f(tp), t_d \rangle$

(22b)에 따라 주절 사건시와 내포절 관점시가 동일하다. (22b)와 (22c)에 따르면 (21)의 명제내용에 포함된 모든 시간 매개물은 결국 t_d 와 중복되므로 믿음의 내용은 결국 $s \models \langle 5pm, t_d \rangle$ 와 같다. John은 결국 발화시에 발화시와 중복되는 시간 t 를 5pm이라고 믿고 있다. (20)을 발화한 화자는 1시간 후 (23)를 발화할 수도 있다. (23)의 기술 대상인 명제내용은 (24)이며 (24)의 정박함수 f 는 (25)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3) John believed it was 5 pm.

(24)



- (25) a. $f(t) = f(TP)$
- b. $r_1 \models \langle \circ, f(T), f(TP) \rangle, r_1 \models \langle \prec, f(TP), f(t_d) \rangle$
 $r_2 \models \langle \prec, f(t), f(tp) \rangle, r_2 \models \langle \circ, f(tp), f(t_d) \rangle$

(25a)에 의해 내포절의 관점시인 $f(TP)$ 는 주절의 사건시인 $f(t)$ 와 같다. (25b)에 의해 내포절의 사건시인 $f(T)$ 는 이 주절의 사건시인 $f(t)$ 와 같아진다. 이 $f(t)$ 는 또한 (25b)에 의해 발화시 이전의 시간이다.

문장 (23)은 또한 주절의 사건시 이전이 5시였다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이는 과거 시제에 대한 2절에서의 두 가지 정의를 이용하면 (24)의 태도 내용 안의 제약 내용을 $T < TP$ 로 바꾸고 다음 조건을 지키는 정박함수를 가정함으로써 설명할 수 있다.

- (26) a. $f(t) = f(TP)$
- b. $r_1 \models \langle \prec, f(T), f(TP) \rangle$
 $r_2 \models \langle \prec, f(t), f(tp) \rangle, r_2 \models \langle \circ, f(tp), f(t_d) \rangle$

3.3 과거-현재시제 내포문

(27)과 같은 소위 과거 밑의 현재구문은 주절 사건시 뿐 아니라 발화시까지를 포함하는 시구간을 지시한다는 점에서 이중접근구문 (Ogihara, 1996)으로 칭해지기도 한다.

(27) John said that Mary is sick.

이와 같은 구문은 내포절이 지시하는 사건이나 상태가 주절 사건시와 발화시에 모두 유지되는 경우에 사용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설명되어 왔다 (Smith, 1978). Mary가

왜 걸근했느냐는 질문을 받은 화자는 John이 Mary가 아프다고 얘기했고 화자 자신도 Mary가 지금 아프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경우 (27)과 같은 발화를 할 수 있다 (Comrie, 1985).

이러한 설명은 공통적으로 내포절의 현재시제가 발화시와 주절 사건시에 모두 관련된다는 점을 파악하고 있지만 아직 분명치 않은 점이 있다. 이들 구문의 사용은 내포절이 기술하는 사건이나 상태가 발화시에 유지되어야 가능하지만, 그렇다고 주절의 사건시와 발화시 사이의 어떤 시구간에 유지되지 않을 경우, 즉, John이 Mary가 아프다고 10일 전에 말했다고, 그 후 회복됐으나 지금 또 다시 아플 경우 문장 (27)을 발화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하게 하고 있지 않다.

Abusch (1991)는 이와 같은 구문이 개체가 시구간에 속성을 부여하는 관계를 표현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 때 시구간이 속성을 부여받을 수 있는 적절한 관계 (suitable relation) SR를 가정하여 주절 사건시와 발화시 사이의 시간상의 불연속을 제거하고 있다.^{14,15} 그는 (28a)의 의미를 (28b)와 같이 표현하고 이 때 (28b)에서 시구간 Pres에게 속성 $\lambda t_1 \lambda t_2 [\text{pregnant}'(t_2, m)]$ 을 부여하게 하는 SR으로서 (28c)를 제시한다. 발화시를 포함한 최대 시구간 Pres가 Mary가 임신해 있는 속성을 가지려면 이 Pres는 말하는 시간인 t와 중복되고 Mary가 배가 불러 있는 최대 시구간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28a)가 참이 되려면 John이 Pres에 대해 Mary가 임신해 있는 속성을 시간 t에 부여하고 이 t는 발화시와 John이 말하는 시구간을 포함한 시구간이 되므로 위의 설명은 (28a)의 올바른 해석을 유도해낼 수 있다.

- (28) a. John said Mary is pregnant.
- b. $\exists t [t < s^* \wedge \text{say}'(t, j, \text{Pres}, \lambda t_1 \lambda t_2 [\text{pregnant}'(t_2, m)])]$
- c. $\{ \langle w, t, t', x \rangle \mid t' \text{은 } t \text{와 중복되고 Mary가 배불러 있는 최대 시구간} \}$
단 s*는 발화시

Ogihara (1996)는 Abusch와 거의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이들 구문의 의미에 대한 설명을 시도한다. 다만 그는 시구간이 아닌 상태(state)라는 사건성(eventuality)를 이용한다. 예를 들어 John과 Bill이 같은 방을 바라보고 있고, Sue가 그 방안에 있을 때, John은 Mary가 방 안에 있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자. Bill은 잠시 후 합류한 Kent에게 (29a)와 같이 말할 수 있다. (29b)는 John이 과거에 Mary가 방 안에 있는 상태라는 속성을 s2에 부여하는 것처럼 말했던 바로 그 상태 s2가 발화시에도 있다는

14. Abusch는 태도를 개체와 속성 사이로 분석하는 de se 분석을 확대, 개체와 개체와 속성 사이의 관계로 파악하고, 이 때 속성을 부여받는 대상물을 일반적인 개체 뿐 아니라 술어와 같은 대상물까지 확대한 Cresswell and von Stechow (1982)의 분석을 이용한다. 그들은 태도를 believe'(a, res, P, t)로 표시하고 "a가 res에 대해 P라는 속성을 (시간 t에) 부여할 수 있게 하는 적절한 관계(suitable relation) SR이 있고, 실제 res가 P라는 속성을 가지는 것으로 a가 믿으면 참이 된다"는 해석을 가지는 것으로 인식한다.

15. Ogihara (1996)는 태도를 개체와 명제 사이의 관계로 파악하고 이러한 의미를 설명하려는 시도들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다음의 구체적인 예로 보여주고 있다.
예를 들어 John과 Bill이 같은 방을 바라보고 있고, Sue가 그 방안에 있는데 John은 Mary가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Bill은 잠시 후 합류한 Kent에게 (i)과 같이 말할 수 있기 때문에 (ii)의 설명은 적절치 않다. Sue가 방에서 나간 다음 Kent가 합류했다면 Bill이 Kent에게 (i)을 말할 수는 없다는 점에서 (iii)의 설명도 적절치 않다. John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한 후 Kent가 합류했을 경우에도 Kent에게 Bill이 (i)을 말할 수 있다는 점에서 (iv)의 설명도 적절하지 않다.

- (i) John said Mary is in the room.
- (ii) p가 t에 참이라고 a가 t에 단언하고, p가 실세계에서 t와 s*를 포함한 시구 간에 참일 경우에 say'(a, p, t)는 참이다.
- (iii) p가 t와 s*를 포함하는 시구간에서 참이라고 a가 t에 단언할 경우 say'(a, p, t)는 참이다.
- (iv) p가 t에 참이라고 a가 단언하고, t와 s* 사이의 어떤 시간이라도 a가 자기 태도를 밝혀야 한다면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밝힐 준비가 되어 있을 때 say'(a, p, t)는 참이다.
(단 s*는 발화시)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서 s2에 해당 속성을 부여하기 위한 조건인 SR은 Sue가 방안에 있는 상태 s2와 John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관계이다. John이 만약 해당 상태를 보고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 상태에 속성을 부여할 수 있는 SR은 충족될 수 있다.

(29) a. John said Mary is in the ro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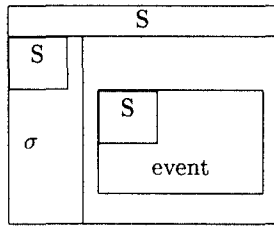
$$b. \exists s_2[s^* \subseteq t_{RT} \wedge \text{exist}'(s^*, s_2) \wedge \exists t[t < s^* \wedge t \subseteq t_{RT} \wedge \text{say}'(t, j, s_2, \lambda t_3 \lambda s_1[\text{be-in-the-room}'(s_1, m)])]]$$

c. {<w, t, st, x> | st는 x가 <w, t>에서 보고 있는 Sue가 방에 있는 상태} 단 s*는 발화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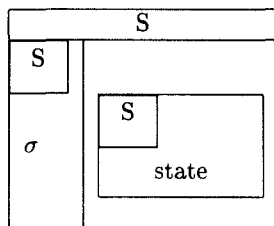
여기에서는 (28)과 (29)의 두 설명 중 Ogihara의 설명을 상황의미론에 수용하고자 한다. 그것은 Ogihara가 지적한 것처럼 Abusch의 SR은 t'이 t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태도 소유주 x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되는 단점이 있어 t'에 속성을 부여하는 SR이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¹⁶ 그러나 이들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속성을 이용하고 대상물이 실재하는 의미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de se에 기초한 de re 분석으로서의 특징을 공유하고 있으며 이중접근 구문이 가진 시간 의미의 특성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보다는 시구간보다는 상태를 이용한 의미 설명이 이중접근해석이 가능한 구문의 통사적 특성에 대한 설명과 통합하기 용이하다고 보여지기 때문이라는 것이 더 큰 이유이다.¹⁷ 또 다른 이유는 지금까지 이용되어온 상황의미론의 태도 설명에 상태를 이용한 설명이 보다 더 수용하기 쉽기 때문이다.

Ogihara의 설명을 상황의미론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건성(eventuality)의 도입이 필요하다. 크게 사건(event)와 상태(state)로 구성 되는 사건성은 (30)에서와 같이 각각 유형 event와 state에 속하는 상황 유형으로 상황의미론에 수용될 수 있다.¹⁸ 이들 유형의 상황과 시간 사이의 시간관계는 상황을 시간과 연결시켜주는 함수 Tim을 이용하여 (31)처럼 표시할 수 있다. (δ는 정보소이다)

(30) a.



b.



16. 물론 이러한 단점이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전히 (28c)와 같은 SR이 Ogihara의 지적대로 왜 적절한 관계인지 이해하기는 직관적으로 어렵다.
 17. 종속절 사건이 완수사건(accomplishment)이나 성취사건(achievement)인 경우에는 이중접근 구문을 생성하지 못하고 상태사건이나 진행사건(progressive)인 경우에만 가능하다(정소우 (1999)).
 18. 여기와는 다른 방법으로 사건과 과정(process)을 상황의미론에 수용하는 방법은 Georgeff and Rao (1993)를 참고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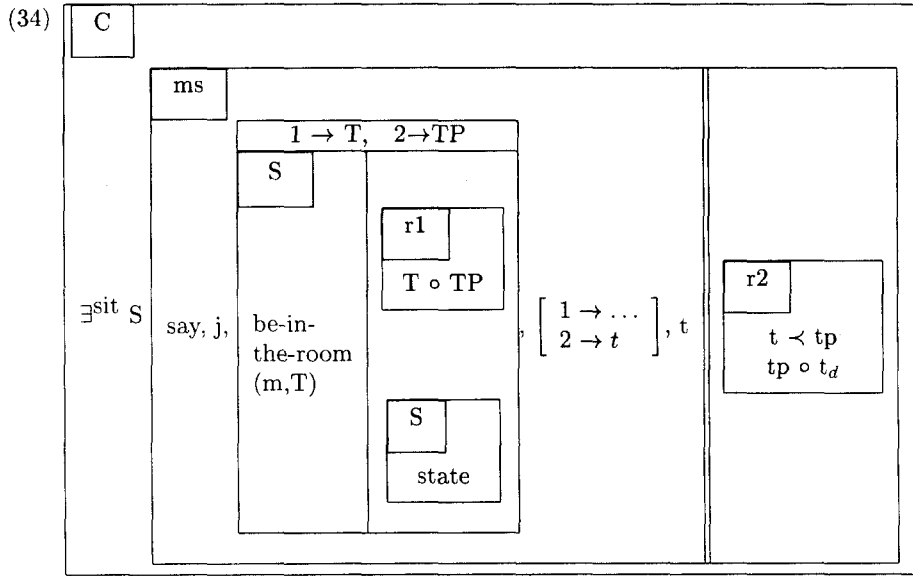
(31) If $S \models \langle \alpha, \dots, t, i \rangle$, then $t \subseteq \text{Tim}(S)$.

상황의미론에 이용하는 존재 양화사 중에는 상황 속에서의 양화를 다루는 양화사로서 유형을 논항으로 취하는 속성 \exists^{sit} 이 있다. (32)은 속성 \exists^{sit} 과 그 논항 T로 이루어진 정보소이며 (32)를 이용하여 만든 명제 (33)은 T 유형의 대상물이 상황 s에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¹⁹

(32) $\exists^{\text{sit}}(T)$

(33) $s \quad \exists^{\text{sit}}(T)$

상태 유형의 상황과 존재양화사를 이용하여 과거 밑의 현재의 시간 의미를 (34)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



(34)는 (35a)의 조건을 지키는 시간 매개물을 정박해주는 함수 f 가 있고, (35b)의 조건을 지키는 상황매개물에 대한 정박함수 g 가 있으며, (35c)의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Tim 이 있을 때 참이 된다.

- (35) a. $f(\text{TP}) = f(t)$
 $r1 \models \langle \circ, f(T), f(\text{TP}) \rangle$
 $r2 \models \langle \prec, f(t), f(tp), r2 \models \langle \circ, f(tp), f(td) \rangle$
- b. $g(S) \models \langle \text{be in the room}, m, f(T) \rangle$
 $g(S)$: state
- c. $\text{Tim}(g(S)) \subseteq \text{Tim}(g(C))$

19. 이 밖에도 상황과 무관한 양화를 다루는 양화사로서 유형을 논항할당 받는 유형 \exists 도 있다. \exists 는 전체 상황이론적 우주에서 대상물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35a)는 주절의 사건시와 내포절의 사건시가 중복됨을, (35b)는 Mary가 방 안에 있는 상황이 상태 유형에 속함을, (35c)는 그 상태의 시구간이 발화환경 C의 시구간에 속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Mary가 방에 있는 상태는 John이 말하는 시간과 발화시에 모두 유지된다. 또한 위 (31)의 조건에 의해 f(T)는 Mary가 방에 있는 상태 상황의 일부분을 이루는 시간이 된다.

4. 맺음말

지금까지 발화시와 사건시를 이용한 기존의 상황의미론의 시제 설명에 관점시를 도입하고 이를 이용하여 영어 내포시제 설명에 이용하였다. 명제에 대한 태도 구문에서 내포 시제는 주절의 사건시를 관점시로 취해 조응어로 해석되는 규칙성을 보인다. 그 규칙성은 태도에 대한 제약의 형태로 상황의미론에 수용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태도 문이나 인용문의 발화에서 내포절의 시간 표현이나 대명사에서 보이는 소위 지시 중심의 변화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이들 제약을 이용하여, 과거시제 연속 구문과 과거 밀의 현재 구문의 시간 관계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과거시제 연속 구문은 관점시를 이용한 과거시제에 대한 두 가지 정의로 그 중의성을 설명할 수 있다; 과거 밀의 현재 구문은 상황의미론의 존재 양화사와 사건성을 이용하여 내포절의 상태가 주절 사건시와 발화시에 모두 유지되는 속성을 설명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설명은 태도절 시제의 모든 현상, 즉, 과거시제 연속 구문이 가진 중의성과 과거 밀의 현재 구문의 시간 의미 속성, 그리고 현재시제에 내포된 시제 해석이 모두 관점시의 조응어적 속성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 준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보완되어야 할 점이 여전히 남아 있다. 먼저 내포절 시제 연구와 관련, 제반 현상을 빠짐없이 다루기 위해서는 의미 해석 뿐 아니라 의미 합성과정에 대한 연구가 수반되어야 한다. 과거 연속 구문에서 내포 시제가 가진 중의성은 내포절 사건이 완수 사건인 경우에는 생기지 않는다: John said Mary bought a car의 경우 내포절 시제는 주절 사건시를 선행하는 해석만을 가진다. 과거 밀의 현재 구문의 생성 역시 내포절이 진행이나 상태 사건의 경우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내포절의 상적(aspectual) 의미를 제한하고 이를 통합해 가는 과정이 기술되어야 한다.

또한 상황의미론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 유형의 상황들의 특성과 이들 사이의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마음 속의 상태를 반영하는 인식 상황이나 사건이나 상태와 같은 사건성을 반영하는 유형의 상황들이 그것이다.

참고 문헌

- 조영순. 1997. 영어 시제와 상황의미론.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정소우. 1999. Temporal interpretation rules. 언어와 정보, 3.1.
 Abusch, Dorit. 1991. The present under past as *De Re* interpretation. In Dawn Bates, editor, *The Proceedings of the Tenth West Coast Conference for Formal Linguistics*. CSLI, Stanford.
 Barwise, Jon and John Perry. 1983. *Situation and Attitudes*. The MIT Press, Cambridge.
 Blackburn, Patrick, Claire Gardent and Maarten de Rijk. 1994. Back and forth through time and events. In Dov M. Gabbay and Hans Jürgen Ohlbach, editors, *Temporal Logic*. Springer-Verlag, Bonn.
 Comrie, Bernard. 1981. On reichenbach's approach to tense. *CLS*, 17.
 Comrie, Bernard. 1985. *Tens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Cooper, Robin and Jonathan Ginzburg. 1996. A compositional situation semantics for attitude reports. In Jerry Seligman and Dag Westerståhl, editors, *Logic, Language and Computation 1*. CSLI, Stanford.
 Cresswell, Maxwell J. and Arnim von Stechow. 1982. De re belief generalized. *Linguistics and Philosophy*, 5.
 Doron, Edit. 1990. Point of view. Technical report, CSLI, Stanford. Report No. CSLI-90-143.

- Dowty, David R. 1982. Tense, time adverbs, and compositional semantic theory. *Linguistics and Philosophy*, 5.1.
- Ejerhed, Eva. 1980. Tense as a source of intensional ambiguity. In Frank Heny, editor, *Ambiguities in Intensional Contexts*. Reidel, Dordrecht.
- Gawron, Jean M. and Stanley Peters. 1990. *Anaphora and Quantification in Situation Semantics*. CSLI, Stanford.
- Georgeff, Micheal, David Morley and Anand Rao. 1993. Events and processes in situation semantics. In Yasuhiro Katagiri Peter Aczel, David Israel and Stanley Peters, editors, *Situation Theory and its Applications*, volume 3. CSLI, Stanford.
- Heny, Frank. 1982. Tense, aspect, and time adverbials, part ii. *Linguistics and Philosophy*, 5.1.
- Higginbotham, James. 1997. Tensed thoughts. In Albert Newen Wolfgang Künne and Martin Anduschus, editors, *Direct Reference, Indexicality and Propositional Attitudes*. CSLI, Stanford.
- Hornstein, Nobert. 1977. Towards a theory of tense. *Linguistics Inquiry*, 8.3.
- Hwang, Chung Hee and Lenhart Schbert. 1994. Interpreting tense, aspect, and time adverbials: A compositional unified approach. In Dov M. Gabbay and Hans Jorgen Ohlbach, editors, *Temporal Logic*. Springer-Verlag, Bonn.
- Johnson, Marion R. 1981. A unified temporal theory of tense and aspect. In Philip Tedeschi and Annie Zaenan, editors, *Syntax and Semantics 14: Tense and Aspect*. Academic Press, New York.
- Kamp, Hans and Uwe Reyle. 1993. *From Discourse to Logic: Introduction to Modeltheoretic Semantics of Natural Language, Formal Logic and Discourse Representatino*, volume Part II. Reidel, Dordrecht.
- Ogihara, Toshiyuki. 1995. The semantics of tense in embedded clauses. *Linguistic Inquiry*, 26.4.
- Ogihara, Toshiyuki. 1996. Tense, attitudes and scope. In *Studies in Linguistics and Philosophy*, volume 58. Reidel, Dordrecht.
- Randolph Quirk, Sidney Greenbaum, Geoffrey Leech and Jan Svartvik. 1985. *A Comprehensive Grammar of the English Language*. Longman, New York.
- Reichenbach, Hans. 1947. *Elements of Symbolic Logic*. Macmillan, New York.
- Smith, Carola. 1978. The syntax and interpretation of temporal expression in english. *Linguistics and Philosophy*, 2.
- Smith, Carlota. 1981. Semantics and syntactic constraints on temporal interpretation. In Philip Tedeschi and Annie Zaenan, editors, *Syntax and Semantics 14: Tense and Aspect*. Academic press, New York.

접수일자: 2000년 4월 15일

게재결정: 2000년 8월 10일